



2020년 11월 8일(제1007호)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몇 년 전 성녀 테레사 수녀가 오랜 시간 사제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책으로 엮여서 출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당시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성녀라 불리던 테레사 수녀님이 겪은 ‘영혼의 어두운 밤’, ‘하느님 부재 체험’에 대한 깊은 탄식과 하소연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1979.9. 피트신부에게 쓴 편지)와 같은 성녀의 편지들을 두고, 무신론자들은 “이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테레사 성녀의 고백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복음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날과 시간을 알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꼭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때가 늦어지자 결국 잠들어 버린 것이죠. 이 처녀들의 모습은 테레사 성녀와 우리와도 연결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신랑의 늦어짐에 지쳐서 잠들었던 것처럼, 성인처럼 훌륭한 분도,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 부재 체험을 한다는 것입

## “어두운 밤”

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느님께 실망하는 때가 종종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하느님 부재 체험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두운 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자책하거나 스스로 나무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복음의 처녀들이나 성녀처럼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느낌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둘째,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과 할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은총을 잘 간직하기 위해 어두운 밤 중에도 하느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나의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정훈(토마스 이퀴니스) 신부  
해성대(5공비탄)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지혜 6,12-16

회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시

1테살 4,13-18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 음

마태 25,1-13

영성제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홍제영 프로타시오



성인명: 홍제영 프로타시오 (洪梓榮 Protase)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80-1840년

홍제영(洪梓榮) 프로타시오는 충청도 예산의 유명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충주에서 태어나 한양에서 성장하였다. 1801년에 순교한 홍낙민 루카는 그의 부친이요, 1866년에 순교한 홍봉주 토마스는 그의 아들이다.

홍 프로타시오는 어렸을 때부터 부친에게 교리를 배웠다. 또 장성한 뒤에는 동료들과 함께 교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교리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1801년의 신유박해로 체포된 뒤에는 부친과 같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한 뒤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도 홍 프로타시오는 한동안 냉담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은총의 힘으로 다시 신앙을 찾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이전의 잘못을 보속하려는 생각에서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해 나갔다. 천주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기도와 묵상 생활에도 열중하였다. 또 일주일에 금식재를 세 차례나 지켰고,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열심히 자선을 베풀었다.

1832년 조정에서 유배자들에게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리자, 광주 관장은 홍 프로타시오를 불러다 “이제 마음을 고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며 설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쳤으며, 이후에도 그대로 광주에서 살았다. 이로부터 7년 뒤인 1839년에 이르러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홍 프로타시오의 마음에는 순교자들의 뒤를 따름으로써, 이전에 잃은 기회를 다시 찾겠다는 욕망이 가득하게 되었다. 또 그는 피신해 다니는 여러 교우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 주고, 그들을 한 가족처럼 대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전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 함께 있던 천주교 신자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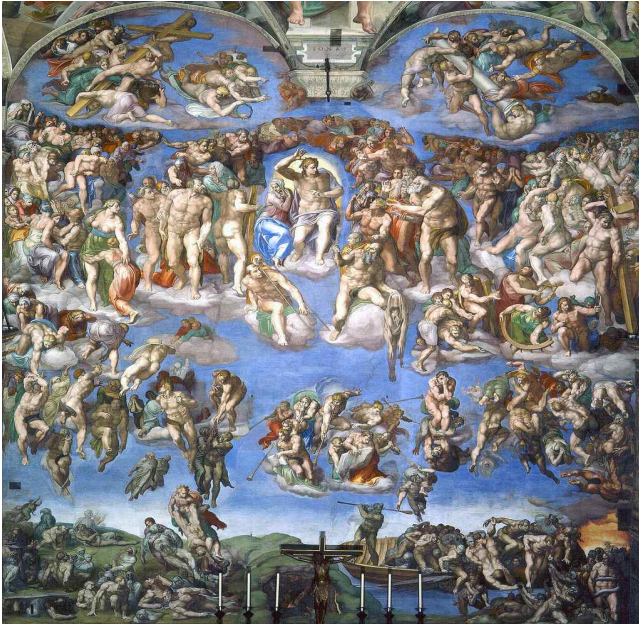
광주 관장은, 홍 프로타시오를 한 번 문초하고 나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전주로 이송하라고 명하였다. 그때 읍내의 주민들 3~4백 명이 나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벌한단 말인가.” 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를 붙잡고, 어떤 이들은 괴로움으로 울부짖기까지 하였다. 전주에 도착한 날부터 홍 프로타시오는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밀고하는 것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도 모두 거부하였다.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형벌을 당하면서도 그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전주 감사는 홍 프로타시오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옥에 가두도록 하였다. 그 뒤 조정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오자, 감사는 다시 한번 홍 프로타시오를 불러내 유혹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홍제영 프로타시오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40년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0세였다.

<b>복</b>	<b>음</b>	<b>목</b>	<b>상</b>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b>뭘 원하니</b>	
				"내게 뭘 해줄 수 있나요?"	그래, 내가 뭘
				"그래 뭘 해주길 원하니?"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막연히 살아갈
				"내게 원하는 게	때가 있지.
				그리 막연해서야."	

상화이야기

최후의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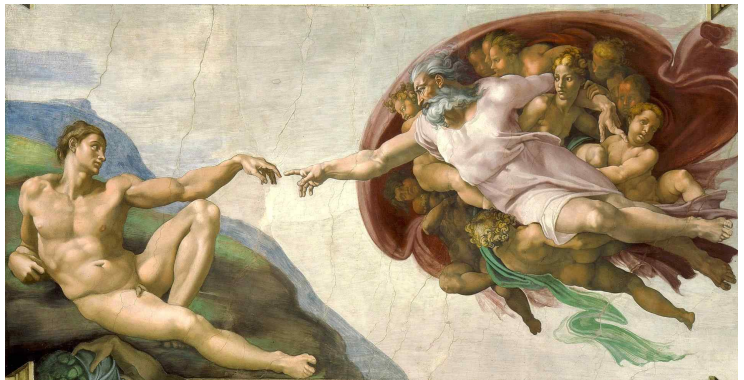


본 프레스코화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시는 주 제대(main altar) 바로 뒤에 있는 그림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있다.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성당의 입구나 출구 위에 그려져, 성당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마다 신자들이 상기하게 되는 주제로, 최후의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 중앙에 예수님이, 그리고 하단에는 죄를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들과 천당으로 향하는 선인들이 그려진다.

미켈란젤로, 1534년~1541년 제작  
프레스코화, 1370×1200cm / 시스티나 성당, 비티칸

본 최후의 심판화도 전통적인 주제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현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미켈란젤로 자신이 25년 전 그린 성당의 천장화(예를 들어 아담의 창조) 같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 같은 분위기 대신, 혼란스럽고 우울한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다.



「아담의 창조」 : 미켈란젤로, 1512년 제작  
프레스코화, 280×570cm / 시스티나 성당, 비티칸

이는 아마도 이 그림이 그려지기 전 약 20년 전에 발생한 종교개혁으로, 가톨릭과 유럽을 휩쓸었던 혼란과 충격의 시대적 상황 및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다음 몇 주에 걸쳐서 이 대작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2주일: 비성대 박윤배 신부

◆ 교구장 동정

- 회의

때·곳: 11월 10일(화), 교구청 회의실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 14:00, 참사회의 16:00

- 군중후원회 지도신부 모임

때·곳: 11월 12일(목) 10:30, 군중교구청

- 서소문 성지 특강

때·곳: 11월 13일(금) 15:00,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성 정하상 경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추를 따르” -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